

延邊博物館 所藏遺物과 保存管理

鄭永振*

연변박물관은 지방역사성 박물관으로서 全稱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 박물관이고 행정 소속은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 산하 사업단위로서 그 주요임무는 연변자치주 경내의 고대, 근현대, 조선족민속유물을 征集, 保管, 研究, 陳列하는 문화단체이다. 연변박물관은 1960년 4월에 건립되었는데 그때 당시 지구급으로서는 중국에세 제일 먼저 창립된 박물관으로서 지금은 중국 소수민족 지구에서 영향력이 큰 지구급 박물관으로 되었다. 지금 관내에는 歷史考古部, 近現代文物部, 朝鮮族民俗文物部, 藏品部, 社會教育部, 藝術設計部 등 업무부문과 辦公室, 保衛科 등 행정부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인원편제는 67명으로서 부교수급 연구인원이 5명이고 강사급 연구인원이 30여명 된다. 지금의 館舍는 1982년 8월, 연변조선족자치주창립 30주년 때 건설된 것으로서 원 설계면적은 5050평방미터인데 지금의 건물은 경비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3050평방미터밖에 짓지 못하였고 제2기공사에 2000평방미터의 전시청과 1000평방미터의 文物庫를 지어야 한다.

연변지구의 역사는 지금까지의 발견으로 약 26000년전의 《안도인》 동굴유적으로부터 시작된다. 안도인동굴유적은 안도현 명월진에서 남쪽으로 2.5km가량 떨어진 부르하통하右岩 남쪽비탈에 자리잡고 있다. 이 유적의 해발 높이는 365미터로서 강바닥보다 25미터나 더 높다. 동굴은 1963년말에 석회공장 노동자들이 석회돌을 캐다가 발견하였는데 吉林省地質局, 東北地理研究所, 吉林省博物館 등 단위에서 공동으로 발굴하였는데 인류가 쓰던 석기는 발견하지 못하고 고대인류의 이빨화석 한점이 동물화석과 함께 발견되었다. 이빨화석은 오른쪽 아래 첫 번째 臼齒인데 완전하게 보존되었으며 화석화 정도가 비교적 높다. 이빨과 함께 발견된 哺乳動物化石종류는 모두 十科十六屬審九種에 달하는데 鼠兔, 花鼠, 狼, 狐, 棕熊, 捨利, 虎, 最后?狗, 猛馬象, 野馬, 馬, 披毛?, 斑鹿, 馬鹿, 狗子, 東北野牛 등 화석이 있다. 동물화석을 탄소 C14로 연대를 탐측¹⁾한데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26000년이다. 이외 연변각지에서 경상적으로 이시기의 동물화석을 발견하였는데 주요하게는 猛馬象, 披毛? 등의 화석이다. 이런 화석들은 지금 연변박물관에 소장되고 있다.

연변지구 신석기시대유적은 지금까지 10여곳을 발견하였는데 그 중에서 발굴을 거친 유적이 龍井市 金谷早期유적과 和龍縣興早期유적이다. 60년대까지만 하여도 연변지구의 고고사업은 薄弱하였기에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초기철기시대 유적을 통털어 신석기시대 유적으로 인정하였다가 1979년 이후 금곡조기유적을 발굴하면서 연변지구 신석기시대 유적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에서 분간하였다. 금곡조기유적은 1979년에 저수지공사를 하다가 발견하고 연변박물관에서 1979년, 1980년에 전면적으로 발굴하였다. 금곡조기유적은 낮은 산마루에 있는데 이 유적 남500미터되는 곳에 청동기시대유적과 무덤이 있다. 금곡조기유적에서 집자리 6개를 청리하였는데 집짜임새는 圓

* 中國 延邊博物館

角장방형으로서 半地穴식으로 되었는데 地穴이 깊지 않다. 매집의 크기는 조금씩 다르나 약 20평방미터 전후이고 집자리 밑바닥에서 기둥구멍을 발견하였는데 규칙성이 없이 기둥을 세웠었다. 집자리 중앙 혹은 벽에서 가까운 곳에 부뚜막자리가 있었다.

집자리에서는 많은 유물들이 나왔는데 주요하게는 陶器, 石器, 骨器 등이다. 토기그릇은 모두 平底器이고 다수는 夾砂褐陶이며 夾細砂黑陶는 매우 적다. 작은 기물은 손으로 빚어 만든 외 대부분은 泥圈疊策法으로 만들었다. 대다수 토기그릇 표면에는 紋飾을 하였는데 種類로는 人字紋, 斜線紋, 点線紋, 回紋<雷紋> 등 여러 가지이고 그중 人字紋이 많다. 紋을 새기는 방법은 대부분 篋狀器具를 가지고 劃壓 혹은 点刺하였는데 紋飾이 대부분 토기그릇 腹中部 혹은 中上部부터 口沿밑까지 있고 腹下部는 없다. 금곡조기유적에서 나온 토기는 많지만 復圓한 것은 20여개이다. 주요 器型으로는 瓮, 罐, 盆, 鉢, 碗, 杯, 蓋, 紡輪 등이다.

석기는 打制한 것과 磨制한 것인데 타제석기는 주요하게 石鋤이고 기타석기는 磨制한 것이다. 種類로는 石鋤, 石斧, 石鏟, 石?, 石磨盤, 石磨棒, 黑曜石, 石鏃 등이다. 骨器는 주요하게 角器, 骨錐, 骨針 등이다. 연변신석기시대유적의 연대는 탄소C14연대 측정을 한 결과 지금부터 440-4500년 즉 기원전 三千紀中後期이다. 연변신석기시대 文化內涵은 黑龍江省的 寧安縣?歌巖유적하층, 조선두만강유역의 雄基西浦項遺址第四五文化層, 茂山虎谷洞遺址第一層 및 로씨야濱海地區大彼得灣沿岸의 查伊桑諾夫克第一虎居址의 文化內涵과 많은 공통된 점이 있는데 응당 동일한 文化유형에 속할 것이다.

연변지구 청동기시대 유적은 지금까지의 발견으로 보면 주요하게 집자리유적과 무덤인데 분포범위가 광범위하다. 지금까지 발견된 청동기시대유적은 약 20몇곳으로서 유적은 주요하게 下流와 가까운 平地거나 丘陵地帶에 있으며 유적의 면적이 모두 비교적 크고 무덤은 주요하게 산기슭 혹은 산비탈에 분포되어 있다. 1987년,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와 연변박물관에서는 공동으로 和龍縣興城遺址을 발굴하였는데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유적은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초기유적이 호상 疊壓한 유적인데 신석기시대 집자리는 5개 발굴하고 청동기시대 집자리는 19개를 발굴하였다. 청동기시대 집자리는 深地穴半地穴式 집인데 움의 깊이는 보편적으로 1.70미터 이상이고 제일 깊은 곳은 2.20미터도 된다.. 이 시기의 집자리는 密集되어 있고 호상 疊壓, 打破關係가 많으며 집면적이 큰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30평방미터이고 큰 것은 500평방미터도 된다. 집자리의 形狀은 圓覺三角形으로서 집안 四周에는 密集한 기둥구멍이 있고 거주면 중부에는 ?排的 배열이 整齊한 柱洞이 있다. 집자리 중간에는 부뚜막 자리가 있으며 안에는 두꺼운 白灰色 재가 가득 차 있다. 집자리 밑바닥에는 어떤 것은 거주면위에 아무런 유물도 없으며 깨끗하고 어떤 것은 거주면위에 대략적인 두께가 40-50cm되는 紅燒土, 大炭 등이 있으며 기둥이 타다남은 것이 그대로 있으며 유물이 아주 많은 곳이다. 이러한 정황은 의외의 화재로 인하여 형성된 것일 것이다.

흥성유적에서 유물이 많이 나왔는데 복원한 陶器만 하여도 300여점이 된다. 陶器는 沙質褐陶, 紅褐陶 素面陶가 위주이고 圖形은 주요하게 直腹罐, 斂口敲腹罐, 斜直腹碗, 大型斂口瓮 및 盆, 鉢, 碗, 杯, ?, 紡輪 등이다. 이외 陶人, 陶笛도 발견하였다. 석기는 磨制한

石斧, 石鏃, 石刀, 石磨盤, 石磨棒, 圖形石餅, 石球와 壓琢한 黑曜石鏃, 石矛 및 刀部만 간 亞腰形石鋤 등이다. 骨器로는 錐, 針, 鏃, 刀, 匙, 發簪, 角錐, 角器 등이다.

홍성유적의 발굴은 연변지구에 있어서의 큰 규모의 중요한 발굴이다. 유적의 文化內涵이 풍부하고 유물이 많으며 또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연변지구 원시사회 編年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 유적에서 출토한 陶器는 보기드문 형태로서 새로운 문화면모를 가지고 있다. 탄소C14연대 측정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3700년부터 3300년까지인데 연변지구 청동기시대 초기유적으로 인정된다. 이전에 신석기시대로부터 청동기시대에는 근천여년되는 缺口가 있었는데 이 유적의 발굴을 통해 이 缺口를 메우게 되었으며 또한 연변지구 청동기시대 초기문화를 새롭게 인식하였다.

연변지구 청동기시대 기타 유적은 그 연대가 대부분 지금부터 3000년전후이다. 이시기의 집자리는 地穴이 초기보다 낮은 점이며 유물들 중 토기는 전부 素面陶인 것이다. 摩制는 石器가 상당히 발달하고 器形種類가 많이 증가된 점이며 石器에서 중국중원 청동기 器物을 모방하여 만든 점이다. 예를 들면 각종 形制不同한 石矛, 直刃 혹은 斜刃石斧, 大小大同한 石鏃, 單孔 혹은 雙孔石刀, 가늘고 긴 柳葉形 혹은 錐狀形石鏃 및 環狀 혹은 花冠狀石器 등이다. 무덤형식은 석관묘가 위주이고 소량의 土坑封石墓, 土坑墓도 있다. 무덤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유적에서 나오는 기물과 같다. 지금까지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청동기가 아주 적게 나오고 있으며 주요하게는 銅扣 등 소형 기물들이다.

지금까지 연변지구에서 발견한 초기철기유적은 약 50여곳으로서 부락자리가 다수고 무덤은 10여곳이다. 이 시기의 연대는 기원전 3세기로부터 기원 1세기이다. 많은 유적 중에서 발굴을 진행한 주요 유적으로는 汪清縣百草溝遺蹟土層, 훈춘一松亭, 二宗小, 龍井大蘇遺蹟, 農林墓葬 등이 있는데 그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집자리는 모두 장방형인 淺半地穴이고 실내에는 돌로 쌓아 만든 부엌자리가 있고 서북부의 牆根에는 온돌자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陶器壁이 비교적 厚重하고 夾砂陶가 절대 다수이며 손으로 빚고 制法上에서 泥圈套接法을 사용하였기에 접합 부위가 잘 斷裂하고 火候가 높지 못하므로 紅褐, 灰褐, 黑褐色이 많으며 一器多色 현상이 대부분이며 모두 素面이며 紋飾이 없고 器物의 底가 口보다 선명하게 작다. 제일 특징적인 기물은 下服을 안으로 줄여 小平底로 된 瓮과 罐, 圓臺形高卷足豆와 柱把豆, 多孔 혹은 單孔인 甑이다. 기물에 보편적으로 圖形 혹은 橢圓形의 柱狀耳가 달리고 上口 혹은 徵上口한 罐, 盆 碗, 杯 등 기물이 유행하고 있다. 셋째, 석기는 통체를 갈아 만든 것이 많고 器形은 주요하게 斧, 鏃, 矛, 刀, 鋤, 鏃, 環狀器, 網錘, 磨盤, 磨棒 등이고 平刃 혹은 刃이며 背에 가까운 곳에다 구멍하나를 낸 凹刀가 아주 특징이다. 이 시기의 유적에서는 骨器가 적으며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에 유행하던 黑曜石器가 기본상 없으며 鐵工具가 나타났다.

이 시기의 문화를 지금 학계에서는 古代北沃沮文化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분포범위가 연변지구를 뺀이나 북으로부터는 흑룡강성 興寧湖 까지이고 동으로는 바다까지이며 서쪽으로는 흑룡강성 張廣才嶺까지이며 남으로는 두만강유역 까지이다.

기원전 37년에 고구려가 건국한 후 얼마 안 되어 연변지구는 고구려의 지역으로 되었다. 고구려통치시기 연변지구는 고구려의 중심지역이 아니기에 고구려유적이 많지 않다.

지금까지의 발견으로 보면 薩其城을 위주로 하는 훈춘지역과 城子山山城을 위주로 하는 연길부근에 고구려시기의 古城이 있으며 고구려시기에 挹婁의 남침을 막기 위하여 쌓은 長城유적이 있다. 이런 고구려시기의 성에서는 각종 紋飾을 한 板瓦, 筒瓦들이 많이 나오 고 있으며 약간의 瓦當도 나왔다. 성자산 산성에서 고구려시기 큰 鐵鍋가 나왔다. 이런 유물들은 모두 박물관에 소장되고 있다.

발해시기 연변지구는 발해국의 중심지역으로서 나라를 건립했던 舊國자리, 東京龍泉府 자리, 中京顯德府자리 등 중요한 都城들이 연변땅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므로 연변지구에는 발해시기의 유적들이 그 어디에나 분포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발견으로 보면 연변지구의 발해유적은 주요하게 성자리, 무덤, 사원지, 건축지, 촌락자리, 교통로 등 각종 유적이 있는데 구국을 위주로 하는 돈화 부근과 중경을 위주로 하는 사 고성부근, 동경을 위주로 하는 팔련성부근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발해시기 城址는 平原城과 山城으로 나눌 수 있는데 평원성이 더 많다. 성의 크기로는 京, 府 州, 縣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대부분은 교통이 편리한 분지거나 河谷臺地에 있으며 山城은 일반적으로 교통도로 요새지에 있거나 중요한 평원성 부근의 산에 있다. 목전, 연변지구에서 220여개의 발해시기 성자리를 발견 하였는데 그 중에서 경 소재지였던 둘레의 길이가 2700미터 이상되는 서고성과 팔련성이 있고 府州소재지였던 둘레의 길이가 2000미터 되는 성자리가 다섯 개 있으며 그 나머지는 둘레의 길이가 1000미터 전후되는 縣급에 해당하는 성이다. 이숫자로도 가히 발해시기 연변지구가 얼마나 번영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성자리는 절대 대부분이 발굴되지 않았다. 이런 성 자리 지표에서 기와 등 많은 유물을 채집하였다.

발해시기의 무덤이 연변지구에서 많이 발견되었는데 발굴을 거친 무덤군도 몇십곳 된다. 발해무덤은 발해유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요한 발견도 무덤발굴에서 이룩되었다. 발해무덤은 절대다수가 석실봉토묘이고 소량의 塼室墓, 土坑墓도 있다.

1973년, 연변박물관에서 화룡북대 발해무덤을 54기 발굴했는데 무덤에서 陶器, 銀器, 銅器, 鐵器, 釉陶器 등 200여점의 유물이 출토되어 70년대초 발해문화를 인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88년에 또 이 무덤군에서 11기의 무덤을 발굴하였는데 2점의 완전한 渤海三彩器가 출토되어 근년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발견이다. 1980년, 연변박물관에서는 화룡현 용두산에서 발해 정효공주묘를 발굴하였는데 무덤에서 묘비와 벽화를 발견하여 발해사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발해사연구에 전례없던 진전을 가져왔다. 1990년, 연변박물관에서는 安圖縣 東淸에서 발해초기무덤을 13기 발굴했는데 무덤형식이 새롭고 출토된 유물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발해문화를 인식하는데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 이상에 열거한 것은 몇십곳을 발굴한 중의 비교적 중요한 것만이다. 이밖에도 근년에 연변지구에서 사원지, 촌락지, ?址등 유적을 발굴하였는데 중요한 유물도 많이 나왔다. 이처럼 연변 지구는 발해시기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기에 유적 유물이 많고 중대한 발견도 하여 발해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돌리는 곳으로서 발해사연구 자료중심의 하나로 되었다.

기원 926년에 발해가 거란족에 의해 멸망된 후 연변 지구는 요나라의 지역으로 되어 여

기에 女眞府大王府를 설치하여 女眞人을 통치하였다. 기원 1125년에 여진인이 金나라를 세우고 연변지구에 曷? 路總管府를 설치하였다. 金나라말기 蒲鮮万奴가 東夏國 <1215-1233년>을 세우고 연길시동쪽 성자산산성에 南京을 설치하였다. 지금 연변에서 발견된 이 시기의 유적과 유물은 주로 金나라시기와 동하국시기의 것으로서 銅印, 銅鏡, 鬼面瓦當, 石棺, 각종 철제공구, 銅? 등 유물이 많이 나왔다. 그 중에서도 수량이 비교적 많은 銅印과 銅鏡 및 각종 철제공구는 비교적 진귀한 유물들이다. 명나라시기, 연변지구는 여진인이 집거한 곳으로서 지금까지 여진인의 무덤을 몇곳 발굴하였는데 무덤결구는 土坑墓이고 통나무로 관을 만들었으며 무덤에서는 白釉瓷器, 銅器, 鐵器, 景泰蘭器, 金耳飾 등 유물이 출토되었다. 청나라시기는 연변이 封禁지역으로서 근 200년간이나 봉쇄되어 있어 人稀煙小한 황폐한 지역으로 되었다. 청나라후기 開禁과 함께 연변지구는 다시 새로운 발전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특히는 조선에서 연속적인 재해를 당해 살길을 찾아 두만강을 건너 연변땅에 들어와 이땅을 개척하였으며 연변의 발전과 번영에 크나큰 공헌을 하였다. 懼 懈??

일본제국주의의 조선과 중국침략은 두나라 인민들에게 막대한 재난을 주었다. 한일 합방후 망국노를 원치않는 조선의 많은 有志之士들이 연변에 들어와 독립운동을 하였으며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반대하여 각종 항일활동을 벌이고 투쟁하였다. 유명한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가 다 연변땅에서 발생하였던 것이다. 연변은 항일근거지의 하나로서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나날에 많은 중조 두나라인민들이 피와 목숨을 바쳐가며 이땅을 지켰으며 많은 유적지와 유물들을 남겼다. 1960년, 연변박물관이 설립되면서부터 사업중점을 항일시기 문물수집에 두고 항일에 참가하였던 老抗聯들에 의거하여 문물수집을 진행하였다. 몇 년간의 노력을 거쳐 66년 6월전까지 많은 진귀한 유물들을 수집소장하여 이후의 진열에 튼튼한 물질적 보장을 하였다. 이런 유물들은 후대양성의 훌륭한 교과서이다.

연변은 조선족을 위주로 여러 민족이 집거한 곳으로서 중국의 법률에 따라 조선족 자치주를 세우고 조선족이 자치권리를 향수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교육을 중시하고 근면하여 비교적 높은 문화수양을 갖춘 민족으로 지금 중국에서도 그 어느 민족보다도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족 민속유물에 대한 수집사업은 50년대초부터 연변대학에서 시작하였다가 60년도에 박물관이 설립되면서 연변대학의 민속유물을 박물관에 移交하였다. 1983년에 조선족민속유물에 대한 수집과 보존, 연구, 진열사업을 가강하고 본 민족의 민속문화유산을 더욱 훌륭하게 발굴정리하기 위하여 연변박물관내에 연변 조선족 민속박물관을 세우고 조선족 민속유물 수집사업을 전개하였는데 연변은 물론 동북삼성 및 하북성, 내몽골 등 무릇 조선족이 살고 있는 곳이면 전부 조사하고 수집하였다. 이런 유물 중에는 가족제도와 사회활동 등 사회생활을 반영하는 것도 있고 衣食住생활을 반영하는 것도 있으며 사회문화, 예술, 교육, 冠婚喪祭, 즉 인생의례를 반영하는 것도 있고 농업, 수공업 등 생산활동 방면 등 다방면의 내용이 있다.

연변박물관이 설립된 30여년내 몇세대들의 참신한 노력으로 연변박물관내에 소장된 유물은 모두 14000여점에 달하며 그 중에서 고대유물이 7000여점이고 근현대유물이 3000여

점이며 조선족민속유물이 4000여점이다. 고대유물 중 연변박물관의 자랑으로 되는 발해시기 유물은 중국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비길 수 없는 것으로서 정효공주묘비, 벽화, 정혜공주묘에서 나온 돌사자, 화룡 북대 무덤에서 출토한 발해삼채, 釉陶罐, 구리 거울 등 국보급 유물도 있다.

박물관의 소장품은 박물관 각항 업무사업의 물질적 기초이다. 소장품이 없으면 박물관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유물의 보존사업은 박물관의 기초사업이며 보존사업의 좋고 나쁨은 박물관각항사업의 전개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연변박물관에서는 보존사업을 가장하고 소장품의 안전을 위하여 《중화 인민공화국 문물 보호법》과 《박물관 소장품 관리조례》에 따라 각종제도를 세우고 소장품의 帳目이 똑똑하고 鑑定이 올바르며 보관이 적합하고 查檢이 편리한 요구에 따라 전문기구를 세우고 보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비록 자치주의 경제상황으로 하여 전문문물고는 짓지 못하였고 선진적인 설비는 갖추지 못하였으나 임시적인 소장고에 測溫, 測濕器를 장치하고 비교적 낙후된 방법이나 사람의 책임성으로 유물의 파손과 변화를 방지하고 있다. 지금 고대, 근현대, 민속유물에 대하여 따로 보존하고 있으며 부동한 質地, 부동한 種類에 따라 적당한 보존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중요한 유물에 대해서는 특수한 보존방법을 취하고 있다. 비록 문물고 조건이 미비하고 경비가 곤란한 정황에서도 선진적인 현대설비는 갖추지 못하였으나 전통적인 수공업 기술로 소장고의 습도를 제거하고 銅器거나 鐵器의 銹를 제거하고 紙張類유물을 加固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고발굴이 끝난 후 陶器는 碎片을 粘接하고 修復한후 별다른 처리를 못하고서 입고된다. 陶器修復에는 주요하게 石膏를 이용하고 粘接에는 乳白皎를 사용한다. 석기는 별다른 처리가 없이 깨끗이 씻은 후 건조한 후 입고한다. 鐵器와 銅器는 먼저 銹를 제거하고 高溫烘干箱에서 세균을 죽인후 다시 입고한다. 紙張類유물보존이 문제인데 소장고조건이 안되므로 색이 변하고 섬유질이 약해지고 습도가 부동함에 따라 파손이 심하다. 이런 정황에서 유일한 방법이 습도 차이를 인공적으로나마 공제하는 것이 제일 급한 것이다. 인위적인 파손을 막기 위하여 될수록 소장고출입을 줄이고 자주 관찰하는 것이다.

소장고유물보다 전시청의 유물파손이 더욱 심하다. 연변박물관건물은 매층 높이가 7미터 되는 대청으로서 창문이 크기 때문에 여름이면 햇볕이 직접 창문을 통해 유물에 비치므로 그 파손이 심하다. 방법이라면 그저 창문발을 쳐놓아 햇빛을 막는다. 여름이면 습하고 겨울이면 건조하여 여름과 겨울 사이의 습도차이가 많으므로 종이류유물은 눈으로도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정도이다. 이러한 정황은 지금의 경제상황으로는 철저히 해결하기 어렵고 그저 인위적인 방법으로 잠시나마 유물의 파손을 방지하고 있다.

1980년에 정효공주묘가 발굴된 후 무덤에서 발견된 벽화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경험을 쌓았다. 연변에서 벽화가 처음 발견되었으므로 이전에 이 방면의 경험이 전혀 없었다. 집안 고구려벽화 보호경험을 참답게 섭취하여 정효공주묘 벽화보존에 일정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정효공주묘 발굴은 80년 10월에 진행하였으며 벽화의 保溫, 化學加固 등 사업은 12월에 진행하였다. 처음에 보호사업의 중점을 原狀保護에 두었기에 묘실위의 塔

基, 苗道를 보류하는데 유의하고 벽화보호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인 묘실의 온도와 습도에 대하여서는 큰 주의가 없었다. 그러므로 80년 겨울에 무덤위에 간단한 保護房을 짓고 무덤길과 塔基를 그대로 보존하였는데 81년 3월에 묘실이 얼었다가 녹으면서 벽화가 탈락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로부터 정효공주묘 보호는 벽화를 보존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이고 이를 전제로 다른 문제를 고려하며 다른 문제들은 이 주요임무에 부속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얻게 되었다. 벽화가 탈락된 것을 다시 加固하고 화학약품처리로 고정한 후 묘도를 없애고 묘실입구 앞에 《ㄴ》자형으로 된 긴 출입구를 쌓아 문을 세층 만들어 달고 찬공기가 직접 墓道口를 통해 묘실내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塔基위에도 흙을 다시 덮고 흙위에다 防寒用珍珠岩을 덮어 무덤위에서부터 묘실에 한기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였다. 전체 무덤위에는 벽돌집을 지어 일정한 정도에서 한기도 방지하고 인위적으로 무덤을 파괴하는 것도 방지하였다. 그 후 매달한번씩 묘실내의 溫濕도 변화를 관찰하고 일정한 규율도 정하였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정효공주묘내의 溫濕도와 정효공주묘부근 지하온도 및 정효공주묘와 부근 지하온도 비교정황은 아래와 같다.

丑 1 : 貞孝公主卯室內溫濕度

年 溫濕度 月	1982		1983		1984		1985		1986	
	溫度	濕度	溫度	濕度	溫度	濕度	溫度	濕度	溫度	濕度
1	5		6.1	100			6.3	98	6.2	100
2	4.8		6	100			5.4	100		
3	3		4.8	100			5.1	98		
4	4		4.4	100	4	100	4	100	3.1	98
5	5		5	100	4	100	4	100	4.8	98
6	6		6	99	4	100	4	100	6.3	100
7	9		8	99	6.7	98	6.7	100	9	99
8	12	100	9	99	8	100	8	100	8	99
9	10.1	99	10	97	11	100	11	100	10	100
10	10	97	10.2	99	10.4	100	10.4	99	3.5	100
11	8.9	99	9.3	97		99			6.9	99
12	4.3	98	8.2	100					6.7	100

丑 2 : 貞孝公主墓附近地下溫度

年 地溫 月	1982	1983
	1.6米地下	4.6米地下
1	4.9	7.6
2	2.5	6.4
3	1.5	5.3
4	1.3	4.6
5	2.7	4.2
6	7.1	4.7
7	10.7	6.1
8	13.3	7.7
9	13.7	9.2
10	12.7	10
11		8
12		7.8

丑 3 : 貞孝公主墓室과 附近地下溫度比較

年 氣溫 月	1982		1982	
	墓室	1.6米地下	墓室	4.6米地下
1	5	4.9	6.1	7.6
2	4.8	2.5	6	6.4
3	4	1.5	4.8	5.3
4	4	1.3	4.4	4.6
5	4	2.7	5	4.2
6	6	7.1	6	4.7
7	9	10.7	8	6.1
8	12	13.3	9	7.7
9	10.1	13.7	10	9.2
10	10	12.7	10.2	10
11	8.9		9.3	8
12	4.3		8.2	7.8

表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정효공주묘 묘실내의 습도는 대단한 것이다. 그러나 변화는 매우 적다. 습도가 제일 많을 때와 제일 적을 때의 차이가 3도밖에 안된다. 이것은 지면의 변화가 40-80도까지인 점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온도변화는 제일 낮을

때는 4도이고 제일 높을 때는 12도로서 8도차이다. 이것도 연변지구 연평균온도 차이가 50-60도인데 비하면 큰 차이가 아니다. 묘실내의 온도와 부근 4.5미터 지하의 溫差가 별반 안된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상의 온도와 습도는 정효공주묘 벽화가 천여년이나 보존하고 있던 원래의 상태이기에 벽화가 온정하게 보존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조건을 파괴하면 곧 벽화가 원래 적응하였던 자연환경을 파괴하였으므로 벽화보존에 위험을 끼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장시간 관찰하고 분석한 후 얻은 경험이다. 원래는 습도가 너무 심하므로 인공적으로 습도를 제거하려고 하였으나 이러한 인식이 있을 후 주요하게는 습도와 온도를 급히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한 선결조건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10여년내의 정황이 증명하다시피 이러한 온도와 습도에서 정효공주묘 벽화는 완전하게 잘 보존되어 가고 있다. 또 한가지 문제는 화학약품처리를 신중히 대하여야 한다. 화학약품처리는 되도록 차수를 적게 하고 독성이 너무 심한 약을 삼가야 한다. 우리들이 사용한 약품은 B-1-6, 丙? 三甲脂 등이다. 정효공주묘벽화는 화학약품처리를 거친 후 탈락하거나 습기가 직접 벽화염색에 스며드는 것은 해결하였으나 매년 화학약품처리를 거친 후 벽화색깔이 80년 처음 발굴했을 때보다 심하게 어두워졌다. 사용할 약품의 화학성분, 성능 특점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잘하여 새로운 약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물보존에서 세가지, 즉 자연인소가 유물에 주는 파손, 인위적인 인소가 유물에 주는 파손, 의외인소가 유물에 주는 파손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연인소가 유물에 주는 파괴는 주로 현대화설비를 이용하여야 하는 점이 많지만 여러 가지 문제, 주요하게는 경제조건으로 인하여 당분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다. 특히 지구급 박물관으로서는 물론 자치주 지도자층에서 중시가 적은 것도 있겠지만 주요하게는 당면의 주요문제는 衣食住문제와 경제건설에서 돈을 써야 할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박물관사업에 너무 많은 투자를 바랄 때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람의 책임감과 노력으로 극구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인위적인 파손에 대하여서는 지금 박물관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유물을 다룰 때 꼭 장갑을 끼고 쥐어야 하며 파손되고 있는 유물을 제때에 발견하고 제때에 처리하는 등의 조치로 방지하고 있다. 의외인소의 파손은 주로 화재, 도적 등 방면의 문제인데 박물관에서는 전문 보위기구를 설치하여 이 방면의 파손을 방지하고 있다.

박물관사업에서 유물수집, 연구 전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미 발굴하였거나 수집하여 얻은 유물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보존하여 세세대대로 이어주는가 하는 문제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조건에서 이 문제가 관장으로서의 저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이고 제일 걱정되는 점이다. 앞으로 계속 꾸준히 노력하여 우선 주 정부지도층을 설득시켜 전시청과 유물고를 하루 빨리 짓는 것이 주요한 과제이다. 유물고가 없고서는 과학적으로 유물을 보존한다는 것은 거짓에 불과하고 또한 현대화설비를 갖춘다는 것도 말도 안될 소리다. 다음으로 전시청을 개조해야 한다. 지금의 전시청은 상품전시회에 쓰기가 편리하지 유물전시에는 폐단이 많다. 우선 될 수록 큰 창문으로 자연광이 직사하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소장고에서 아무리 유물을 잘 보존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전시

청에서 전시하면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관리를 기강하고 각종 제도를 엄하게 하며 유물의 의외파손을 방지하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보존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계속 이용하고 사업가운데서 부딪치는 문제들 중에서 새로운 조치를 부단히 첨가하며 완벽화하여 유물을 효과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연변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유물과 보존관리 및 보존관리가운데 존재하는 어려운 문제, 앞으로의 해결대책에 대한 필자의 간단한 생각을 적었다. 여기에 적당하지 못한 점과 착오적인 것이 많으리라고 생각되면서 여러분들의 지적과 방조를 바라는 바이다. 앞으로 중국의 개혁개방이 진일보로 되면서 경제형편이 좋아짐에 따라 허다한 문제점들도 해결될 것이고 세계선진국처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현대화수단과 기술을 연변박물관에서도 사용할 그날이 꼭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이 글을 마친다.